

201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 일 시 : 2015. 9. 1.(화) 10:30~12:30
-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 참 석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9명
 - 당연직(2명) : 위원장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우병호 재난대응과장
 - 위촉직(7명) : 최강진,곽상록, 박유미, 유순규, 유영희,
임태호, 곽영호, ※불참:장혜영,김남희,오은선,최영화
 - ※ 간 사 : 구급관리팀장 강동만
- 회의내용
 - 2015년 상반기 중요 활동내용 공유(메르스, 폭염, 풍수해)
 - 감염병 관련 중요정책 자문
 - 자연재해 대응관련 자문

간 사 : 오늘 회의는 2015년 상반기 주요 구조·구급정책 관련 대응업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음.

바쁘신 가운데 오늘 9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 소개 -

위원장님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인사말씀 -

간사는 오늘 회의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및 안건 보고

- 2015년 상반기 중요사건 활동내용 보고 (메르스, 폭염, 풍수해)
- 감염병 및 자연재해 관련 토의 안건 설명

위원장 : 올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로 초기 어려움도 많았고 질책도 많이 받았지만 모든기관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현재 사실상종식에 이룸. 2015년 상반기 중요사건 관련 회의는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이끌어 나갈 것을 제안하니,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람.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이 서울시의 정책이되고 모범이 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발전

부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 간사께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우선, 오늘의 회의진행 과제인 감염병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람.

○○○위원 : 천만이 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지만 사고가 난 후의 대응보다 철저한 대비가 피해를 막는 지름길 이므로 좋은 정책이 시행되어서 일선소방관들이 어려움 없이 시행하여 사기를 진작해 주는 의견들이 되었으면 함

부위원장 :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임. 메르스 관련해서 소방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염우려에 관한 대원들의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안 접근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람

간 사 :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직접 격으셔서 현실성 있는 좋은의견 기대됨.

○○○위원 : 병원 침상에 소독젤로 손소독제가 있어서 환자접촉 전후 사용하고 있는 중임. 구급대도 이런 것이 제도화 되어 있는지 궁금. 환자가 기침, 고열이 있으면 무조건 마스크, 고글, 가운 등을 착용하도록 프로토콜을 수정하기 바람. 초기 의심환자 이송 보호복 관련 폐기물로 병원에서 구급대와 마찰이 있었음. 폐기물관련 대책이 필요함. 환자 이송 시도 재난상황실에서 환자이송병원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과정 필요

간 사 :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며 보호복관련 초창기 혼선이 있었으나 보호장구

착용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에 힘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협조하여 폐기물을 보건소로 일괄 수거처리하고 환자이송 업무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환에 주력하고 있음

○○○위원 : 소방에서 감염자가 한명도 없었다는건 감염관리를 잘했다는 반증이나 만약 에볼라가 유행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겼을지도 모름. 그리하여 특수구급차(현재 국내에서 제작 불가능)를 구입하여 앞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소독관련 배치한 플루건 소독기의 성능이 차량내 소독상태가 완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감염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급차 감염에 관한 프로토콜 정비 바람

○○○위원 : 위기대응관련하여 구매후 거의사용못하고 폐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재 구입이 어려움. 새로운 장비를 구입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함

간 사 :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내 운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활용가능한 전염병 이송관련 특수구급차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차후 구급차 감염에 대한 프로토콜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정비하겠음.

부위원장 : 비싼 특수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라텍스글러브가 산소 캐놀라 마스크 등 소모품부터 충족되어야 감염관리가 될 것임. 특수차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부위원장 : 환자의 병력정보가 구급대에게 전달되지 않아 병원이송에 혼선이 있는 경우 등 어떤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위원 : 경증환자의 경우 구급대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판단의 기준이 없는 현실임. 가까운 곳으로 이송 및 타권역으로 이송을 하지 않는 방법 강구 바람

○○○위원 :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 어려움이 크고 판단의 기준 또한 모호하여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무리한 구조작업으로 구조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음,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이 절실함.

○○○위원 :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지하철 좌석이 불연재로 바뀌었다가 시민들의 불편요구에 요즘 다시 원상복구됨. 세월호의 경우도 대비가 없어서 피해가 커졌음. 평상시 재난예산 부족으로 대비가 부족했으나 메르스 이후 관련예산편성으로 관련장비 및 소모품 충분히 구입함. 사고 이후 구입이 아니라 평상시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가졌으면 함

부위원장 :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음.

그 다음 토론 과제인 폭염 및 풍수해 대응에 관한 의견 주시기 바람.

○○○위원 : 세월호 대응시 미군함이 근처에 있었으나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매뉴얼상 수온이 입수가 가능한 온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염 및 풍수해도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여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현실성 있게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하면 특수구급차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고, 프로토콜이나 구급장비 등은 여러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현실성 있게 결정하고 국민의식은 국민안전처에서 국민들을 위한 의식변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국민안전처에 서울소방본부 구조구급정책 협의회의 의견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음.

간 사 :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간담회 시간에 계속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람, 위원회를 마치겠음.